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오늘부터 임금체불제 시행...공공기관 등 직접 임금 지급 건설기계 대여금 일괄보증으로...고용평가제 연말부터 시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임금체불이 없어질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가 대표적 시스템으로, 사실상 발주기관의 돈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임금을 체불할 수 없게 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건설현장 임금체불(공공공사 포함)은 ▲2017년 4400명·135억9200만원 ▲2018년 5633명·160억3200만원 ▲올해 5월 현재 2763명·93억8600만원에 달한다.

지나해부터 자체 발주 공사 현장에 이 시스템을 시범 적용했다니 두 차례 명절대비 점검 때 임금 체불 현상이 사라졌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건설사가 임금 등을 허위 청구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임금 허위 청구가 처음 적발된 건설사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원의 과징금, 두 번째 위반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원·하수급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1~12개월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위반이 반복되면 50% 가중 처벌된다. 하수급인이 위반했다라도 귀책 사유에 따라 원·하수급인도 0.3~0.5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벌점 5점이 넘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000만원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에서 예정가격이나 도급 금액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 금액으로 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여 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 밖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계약간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선한다.

또 건설사가 얼마나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우수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지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98.71 (+7.98)	금리(국고채 3년) 1.49 (0.00)
▼ 코스닥 714.86 (-4.27)	↓ 환율(USD) 1185.80 (-0.70)



남자의 변신은 무죄 패션·미용에 투자하는 남성들을 일컫는 ‘그루밍족’을 겨냥해 롯데백화점 광주점 화장품 매장 베네티프는 남성 고객이 확실 제품을 구매하면 눈썹 모양을 다듬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대구은행 ‘달빛’ 일손돕기 담양 무월마을 감나무 가지치기 봉사



송중욱 광주은행장(왼쪽)과 김태오 대구은행장이 18일 오전 담양 무월마을 감나무밭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18일 담양 무월마을에서 대구은행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달빛동맹 교류의 일환으로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김태오 대구은행장을 비롯한 두 은행 임직원 총 70여명이 참여했으며 호남과 영남의 금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쁜 농번기철에 감나무밭의 일손을 도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은 2015년부터 해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가며 농촌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동안 경북 상주 사과와 보성 감 수확 등에 이어 올해는 네 번째 봉사활동으로 담양의 감나무밭 일손돕기를 시행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지역간 문화·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해 동서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갈수록 좁아지는 중소기업 채용문

전국 460곳 중 58.5%만 채용 계획...2년 연속 하락

‘사람인’ 조사

중소기업의 하반기 채용계획이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취업정보사이트 사람인이 전국 중소기업 46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58.5%가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2017년 64.9%→2018년 62.7%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응답한 기업들의 올 하반기 채용규모

는 총 1911명으로, 기업 1곳당 평균 7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채용 시기는 수시 채용(38.7%)이 가장 많았고 7월(25.3%), 9월(14.5%), 10월(7.4%), 8월(7.1%), 11월(4.5%)이 뒤를 이었다. 채용 분야는 영업·영업관리(26%·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고 ▲제조·생산(20.1%) ▲서비스(17.1%) ▲연구개발(11.5%) ▲IT·정보통신(10%) ▲마케팅(8.6%) 등 순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통합 국세청 현장인력 374명 충원

기재부 내달부터...중복지출·조달업체 불편 최소화

제각각 운영됐던 공공부문 전자조달시스템이 7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이 별도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이 별도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중복지출, 조달업체의 불편 등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자조달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 보안 유지 목적상 필요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서 달목적 달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자체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에 대해 조달청에 위임하되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민원 서비스 개선과 지능적 탈세 대응을 위해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가 신설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수혜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현장인력이 374명 충원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를 신

‘빅데이터센터’ 신설...납세서비스 고도화

설하고 인력 13명을 확충한다. 빅데이터센터는 지능적 탈세와 체납 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대상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374명을 충원한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돼 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지난해(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의 무색 유기화합물인 퓨란의 농도를 색이 변하는 시약을 이용, 측정해 변압기의 열화상태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현장에서 변압기의 열화정도를 빠르고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변압기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체에서 적용 가능하다.

한편 한전은 지난 13일 전력연구원서 이번 무상 점검 대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용량 산업용 고객 변압기 열화진단 기술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기업 97곳 변압기 1103대 무상점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삼성전자, SK에너지 등 97개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1103대의 대용량 변압기에 대한 무상점검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의 이번 점검은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업체가 보유한 전력설비의 사고가 대형 정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무상점검에는 한전 전력연구원 이 세계 최초로 변압기 수명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퓨란 간이분석 키트’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퓨란 간이분석 키트’는 변압기 내부

의 무색 유기화합물인 퓨란의 농도를 색이 변하는 시약을 이용, 측정해 변압기의 열화상태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현장에서 변압기의 열화정도를 빠르고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변압기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체에서 적용 가능하다.

한편 한전은 지난 13일 전력연구원서 이번 무상 점검 대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용량 산업용 고객 변압기 열화진단 기술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